

호주불교 급성장 '숨은 일꾼'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7>

그럼 리울

90년대 초 호주정부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0년동안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총인구중 19만8천5백20명이 불교 신자로 불교교세가 예전보다 400%나 증가했다고 밝혀 세계불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호주불교세가 급증한 데는 남부웨일즈불교평의회(Buddhist Council of New South Wales)의 그램 리울(Graeme Lyall, 66) 회장의 남모를 원력이 숨어 있다.

시드니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리울은 호주국립대에서 아시아계 유학생들과 학창시절을 보내며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호주는 1879년 중국불교가 최초로 전해졌지만 1950년대까지도 포교원이나 단체가 전무했다. 당시 시드니에서 다마디나 스님이 유일하게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 스

틸라 스님(버마) 등의 고승들의 지도를 받으며 법회와 포교를 계속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불교협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나라다 스님은 '마음의 수행'이란 주제로 명상을 가르치고 짧은 계승으로 끝냈다. 이 법회에 참여한 5백여 호주인들은 다소 이색적인 것을 느끼지만 박한 감동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당시 호주불교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은 언어장벽이었다. 인도-차이나반도전쟁의 막바지였던 70년대에 이르러 베트남, 티베트,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아시아계 스님들이 호주로 대거 이주해 왔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포교에 곤란을 겪은 것. 그는 아시아 스님의 이민·정착·외사소통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불교적 조직의 필

요를 느꼈다. 1982년에 그는 불교협회와 시드니다 불교화회(Unibodhi)를 통합하고 동아시아 이주민의 정착과 종교생활을 돕기 시작해 1985년에 호주불교 발전을 위해 남부웨일즈불교평의회(이하 '평의회')를 발족시켰다.

평의회는 먼저 호주 내에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985년 한 방송광고에서 부처님의 이미지를 코미디화한 것을 지적하고 광고주와 법정싸움을 벌여 공식사과를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평의회는 호주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불교단체로 발돋움했다. 최근에는 영국국교회 주교의 불교비



◇ 1996년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올곧게 이끌기 위해 남부웨일즈 평의회 회원을 맡고 있는 그램 리울(왼쪽).

다'고 말할 것이 발단이 됐다. 평의회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재하는 호주의 정신적 조화를 깨뜨리는 말"이라며 호주언론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언론위원회는 영국국교회와 불교계의 중재자리를 마련했고 "영국국교회 주교의 공식사과를 권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 호주에서 언론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불교계의 위상을 짐작케 한 사건이었다.

시드니 근교의 불교도서관 역시 평의회와 평의회는 1987년 '평화의 해'로 지정하자 시드니에서 '평화를 찾아서'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불교이념을 소개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드니에서 다양한 종교가 모여있는 호주의 종교적 평화를 염원하는 시가행진을 전개해, 종교를 초월한 1천여명의 호주인이 참여하는 성과도 얻었다.

리울과 평의회는 1987년 '평화의 해'로 지정하자 시드니에서 '평화를 찾아서'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불교이념을 소개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드니에서 다양한 종교가 모여있는 호주의 종교적 평화를 염원하는 시가행진을 전개해, 종교를 초월한 1천여명의 호주인이 참여하는 성과도 얻었다.

리울은 이때 캄보디아·티베트불교계를 설득해 도서관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갑자기 급증한 아시아계 이민으로 테레바(원시불교) 티베트불교 대승불교 등 산개(散在)된 호주불교계의 융합까지도

이루었다. 이외에도 평의회는 국제연합이 1987년을 '평화의 해'로 지정하자 시드니에서 '평화를 찾아서'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불교이념을 소개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드니에서 다양한 종교가 모여있는 호주의 종교적 평화를 염원하는 시가행진을 전개해, 종교를 초월한 1천여명의 호주인이 참여하는 성과도 얻었다.

그럼 리울은 요즘 안락사법의 위험성을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호주에서는 이 법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으로 떠돌아다닌다. 그는 "안락사법은 불교의 가장 근본 계율인 불살생(不殺生)의 도리를 거스른 죽음의 문화"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불교계와 가톨릭계를 주축으로 한 종교연합행동을 개최해 호주에서 안락사법을 꼭 폐지할 것"이라며 힘있는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종욱 기자

남부 웨일즈불교평의회 발족 불교외호 앞장...안락사법 폐지운동도

시드니 근교 불교도서관 건립 불서 3천여권·명상실 등 갖춰

남부 웨일즈에서 공부하고 스리랑카에서 수계받은 미국인 비구니 스님이었다. 리울은 스님을 찾아갔다. 당시 다마디나 스님은 리오 버클리(L. Berkeley)를 비롯 8명의 호주인에게 불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에게도 함께 공부하길 권유했다. 이 인연으로 그는 불교를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버클리와 함께 1983년 시드니의 옥스포드에서 호주 최초 불교단체인 불교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는 초창기에는 교리강좌·명상교육·(불교뉴스)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했다.

불교협회는 다마디나 스님 외에도 호주를 방문한 나라다 스님(스리랑카) 티

요성을 느꼈다. 1982년에 그는 불교협회와 시드니다 불교화회(Unibodhi)를 통합하고 동아시아 이주민의 정착과 종교생활을 돕기 시작해 1985년에 호주불교 발전을 위해 남부웨일즈불교평의회(이하 '평의회')를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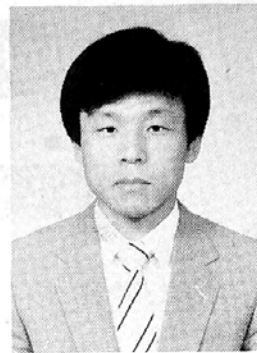
평의회는 먼저 호주 내에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1985년 한 방송광고에서 부처님의 이미지를 코미디화한 것을 지적하고 광고주와 법정싸움을 벌여 공식사과를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평의회는 호주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불교단체로 발돋움했다. 최근에는 영국국교회 주교의 불교비



◇시드니에서 개원한 남부 웨일즈불교평의회(이하 '평의회')의 현관 전경(왼쪽). 오른쪽 사진은 태국불교계가 운영하는 불교서점 모습.



류우석 (영국표준어·한국어)



어린시절 나는 새벽 잠깨는 할아버지의 독경소리에 항상 잠을 깨곤 하였다. 독경을 하시는 할아버지에게서 경건함과 당당함을 느끼곤 했다. 또 인근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 범종소리는 어린 나에게 뭔가 사색의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하여튼 종소리는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지라왔기에 어릴 때 특별히 법회를 나가거나 교리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또 각별히 종교를 가져다 갔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렇지만 불교는 항상 나의 옆에 있었고, 나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었다.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문화양식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쪽 저쪽을 거닐며 한때 방황도 했다. 다행히 좋은 인연이 닿아 모임이 이루어지고 같이 신명생활을 하며 다시 불교가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자 곤혹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발생했다. 현대사

기도를 소리내어 하도록 권유했다. 아이들이라 금방 따랐다. 이내 공양기도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기독교식 기도를 배워 왔다. 어느날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삼귀의를 외지 않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나는 무심코 넘겼다. 그러더니 며칠뒤에는 유치원에서 배운 기독교 기도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에서 배운 기독교식 식사기도와 집에서 배운 공양기도가 달랐으니 아이들도 혼란을 느낀 것이다. 그러다가 유치원 쪽을 택한 것이다. 선생님의 위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다. 당황한 사람은 나였다. 선생님의 말씀을

기마다 공양기도 가족신심 다져 어린시절 할아버지 독경소리 내 삶의 자양분



회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생활습관을 지켜나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신명생활을 손쉽게 선택한 것이 공양기도다. 핵가족 사회에서 식사시간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음식이 준비되고 식탁에서 잠깐 공양기도를 같이 하는 동안은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합일되는 따스함을 느끼게 된다.

삼귀의로만 진행된 기도시간은 잠깐이지만 그 인연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나의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새벽 독경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지만 식사시간에 공양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불교와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불교에서 식사전에 하는 공양계송이라는 기도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삼귀의로 공양기도를 대신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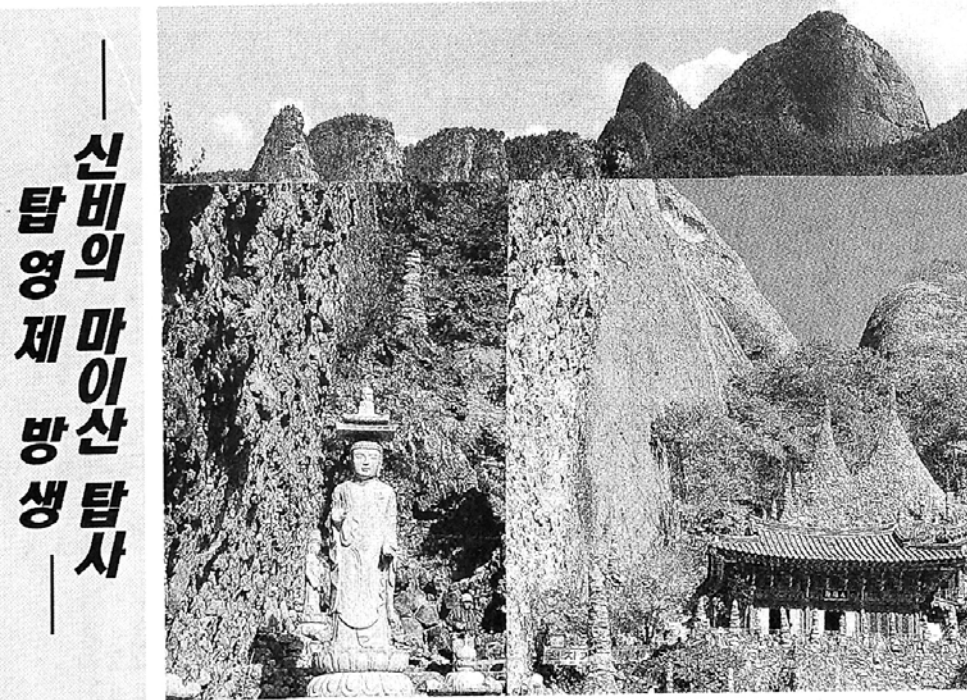
처음 공양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가족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척 서먹하였다. 처음엔 혼자 마음속으로 나무랄 나무랄 나무랄 외고 식사를 하다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삼귀의

제일로 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렇다고 유치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처음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라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이들에게 타종교를 달리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기도방법의 다양성을 알려주었다. 식사기도에는 유치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있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있는데 유치원도 우리 집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집의 방법이 더욱 더 소중하다고 말이다. 그러니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기도노래를 하고, 그외의 다른 곳에서는 집에서 하는 공양기도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 서야 다시 공양기도를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심어주는 방법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다. 사회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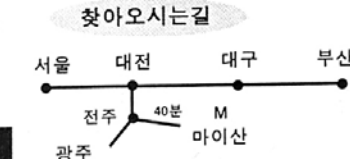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그 후 절에서 정식으로 공양계를 배웠다. 지금도 식사시간에는 다 함께 삼귀의와 공양계송으로 중풍의 인연을 기우어 가고 있으며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한국역학대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당학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및 수강료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대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대표전화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3 해광 B/D4층 (02)423-6446